

스토리 월드컵 | 각본 없는 드라마... 월드컵 '최고의 이변'은?

# 伊 잡은 안정환 골든볼... '2002년 4강' 꿈엔들 잊을까?

<이탈리아>

국내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F조 최약체로 지목한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인 독일, 현란한 개인기의 멕시코, 피지컬이 월등한 스웨덴을 상대로 1승을 챙기기도 벅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축구공은 둥글다. 특점이 많지 않은 중목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변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거 월드컵에서도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의 묘미를 한층 배가시켜준 이변이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 중에서도 '역대급' 이변이 연출된 승부들을 되돌아본다.



역대 월드컵에서도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변들이 속출했다.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에선 북한이 8강까지 올라 포르투갈과 당당히 맞섰고(왼쪽 사진),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전에서 세네갈이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침몰시키는 파란을 날았다(가운데 사진), 2014년 브라질월드컵 준결승 무대에 오른 독일은 개최국 브라질의 자존심을 7-1로 짓밟았다. 스포츠동아DB·신화뉴스

### ●북한이 일으킨 축구변방 최초의 반란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에선 북한이 조별리그에서 박두익의 결승골로 '아주리군단' 이탈리아를 1-0으로 제압하고 8강에 합류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럽과 남미로 양분되어 온 세계축구사에서 최초의 파란으로 기억되고 있다. 북한은 8강전에서도 포르투갈을 맞아 먼저 3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눈앞에 둔 듯했으나, '흑표' 에우제비오에게 4골을 허용하며 3-5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이변의 제물로 8강 진출에 실패한 이탈리아는 귀국길에 성난 팬들로부터 썩은 토마토 세례를 받았다.

### ●개막전 이변에 휩쓸린 디펜딩 챔피언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에선 개막전이 이변으로 잠чал았다. '축구천재' 디에고 마라도나를 앞세워 2연패에 도전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불굴의 사자군단' 카메룬에 0-1의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기세를 탄 카메룬은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8강 무대까지 밟았다. 아르헨티나는 이후 전열을 재정비해 결승 진출을 달성했으나 서독의 벽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카메룬이 방아쇠를 당긴 아프리카축구의 급부상은 비록 월드컵보다는 격이 떨어지지만,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나이지리아의 우승이라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졌다.

### 1966년 북한, 伊 꺾고 8강행 반란

1990년 아르헨, 카메룬에 충격패  
2002년 프랑스도 세네갈전 '발목'  
2014년 브라질, 독일전 7-1 완패

### ●개막전 패배&조별리그 탈락에 온 프랑스

개막전의 반란은 12년 뒤 재현됐다. 역사적인 2002한·일월드컵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세네갈에 0-1로 발목을 잡혔다. 개막전에 앞서 한국과 치른 평가전에서 다친 '아트사커' 지네딘 지단은 벤치에서 프랑스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프랑스는 개막전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1무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추가적 수모를 당했다. 반대로 세네갈은 카메룬처럼 8강까지 나아올랐다.

### ●'꿈★을 이룬' 대~한민국의 함성

한·일월드컵에선 더 큰 이변의 쓰나미가 엄습했다. 개최국 한국이 주인공이었다. 2승 1무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한국은 16강 상대 이탈리아마저 연장 승부 끝에 2-1로 따돌리고 월드컵 역사를 새로 썼다. 후반 42분 설기현의 동점골, 연장 후반 12분 안정환의 골든볼이 굳게 내려져있던 이탈리아 골문의 빗장을 건어냈다. 한국은 내친김에 4강전까지 올라 아시아 국가의 월드컵 최고 성적을 일궜다.

### ●'미네이랑의 비극', 브라질을 삼키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선 약간은 다른 성격의 이변이 세계축구를 강타했다. 승패가 아니라 스코어였다. 준결승에서 '전차군단' 독일이 '삼바군단' 브라질을 7-1로 대파했다. 1950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겪은 '미라카낭(경기장)의 비극'에 버금가는 '미네이랑(경기장)의 비극'이 브라질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다. 월드컵 개최국이 4골차 이상으로 패한 최초의 사례이자, 브라질축구의 사상 최다점수차 패배였다. 브라질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안방에서 처음 7골이나 내줬고, 홈 연승행진 또한 62경기에서 중단됐다. 반면 독일은 월드컵 준결승에서 7골을 뽑은 최초의 팀이 됐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안정환은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 격파에 앞장섰다. 1-1로 맞선 연장 후반 12분 극적인 헤딩 골든볼로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이변을 완성했다. 스포츠동아DB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경찰 보호없이 심판 안해!”...살벌했던 초대 월드컵 결승전

###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②

우루과이-아르헨티나 신경전 치열  
전후반 공 바뀐 사용하는 해프닝도  
개최국 우루과이, 초대 챔피언 영광

1930년 제1회 월드컵에는 개최국 우루과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페루, 벨기에, 프랑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멕시코, 미국이 출전했다. 남미 7개국, 유럽 4개국, 북중미 2개국이었다. 루마니아는 스포츠팬이었던 카롤 2세 국왕의 열성적 후원 덕분에 참가했고, 유고슬라비아는 FIFA로부터 출전비용과 숙박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13개국이 4개조로 나눠 자유를 겨룬 뒤 각조 1위가 준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역사적인 첫 월드컵 경기는 7월 13일 벌어졌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포시토스 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랑스-멕시코전(4-1)이 개막전이다. 같은 날 몬테비데오 파키센트랄 경기장에서도 미국-벨기에전(3-0)이 열렸다. 우루과이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경기장(센테나리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관중 10만명이 들어설 경기장은 개막 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개최국의 첫 경기는 우루과이 독립 기념일인 7월 18일 센테나리오에서 열렸다. 다른 팀들보다 5일이나 늦게 경기를 했던 이유다.

그 바람에 프랑스-멕시코의 개막전에서 많은 월드컵 최초 기록이 나왔다. 월드컵 1호골(전반 19분)의 영광은 프랑스의 루시앙 로랑이 차지했다. 월드컵 본선 최초로 부상 교체 선수도 나왔다. 프랑스 골키퍼 알렉스 테키투였다. 멕시코 선수의 발에 턱을 차이는 부상을 당해 미드필더

어거스틴 산트렐이 대신 GK가 됐다. 월드컵 최초의 퇴장은 7월 14일 페루-루마니아전에서 페루 수비수 플라시도 갈린도가 기록했다. 7월 15일 아르헨티나-프랑스전에서는 첫 불상사가 나왔다.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선 가운데 프랑스의 마르셀 랑지에르가 동점골을 넣으려던 순간, 브라질 주심 알메이다 레고가 경기 종료 휘슬을 3번이나 불었다. 문제는 경기 종료까지 6분이나 남아있었다는 것. 프랑스 선수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아르헨티나와 사이가 나쁜 우루과이 관중들도 경기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관중들을 모두 그라운드에서 몰아낸 뒤에야 경기가 재개됐다. 월드컵 최초로 페널티 성공은 멕시코 마누엘 로하스의 차지였다. 7월 19일 아르헨티나전에서 기록했다. 그는 월드컵 최초의 자책골 주인공이기도 하다. 7월 16일 칠레전에서 기록했다. 월드컵 최초의 헤트트릭은 미국의 버트

페이트노드가 7월 17일 파라과이전에서 달성했다. 한동안은 아르헨티나의 기예르모 스타빌레가 7월 19일 멕시코전(6-3승)에서 달성했다고 알려졌다. 페이트노드의 첫 헤트트릭 기록은 2006년부터 FIFA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결과 1조 아르헨티나, 2조 유고슬라비아, 3조 우루과이, 4조 미국이 각각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두 경기의 스코어는 모두 6-1로, 남미의 속적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예상대로 결승에 진출했다. 두 팀은 2년 전 올림픽 결승전에서도 만났다. 1년 전 남미선수권대회(일명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도 격돌했다. 두 대회의 결과는 1승1패. 첫 월드컵 우승을 앞둔 두 팀의 신경전은 대단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해 온 공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팀의 주장이 맞서자 FIFA는 전·후반 각각 공을 바꿔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유일한 사례다. 전반

은 아르헨티나의 공으로, 후반은 우루과이의 공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심이었다. 워낙 치열한 라이벌끼리의 경기라 누구도 주심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 아르헨티나 선수를 향한 살해위협도 있었다. 경기 개시 3시간을 앞두고서야 간신히 주심을 결정했다. 벨기에 주심 장 랑게누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의 삼엄한 에스코트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우루과이 밖으로 탈출시켜줄 배를 준비해달라는 요구였다. 국경을 마주한 두 나라 열성 팬들의 엄청난 응원열기 속에 경기는 우루과이의 4-2 승리로 끝났다. 우루과이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남미 국가 최초로 유럽원정 우승을 차지했고, 1928년 암스테르담올림픽에 이어 첫 월드컵까지 제패하는 영광을 누렸다. 우루과이 정부는 우승 다음날 임시공휴일을 선포했다. <계속> 김홍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